



Maquiladora Alert

September 2013

본 뉴스레터(Special Edition)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McGladrey의 멤버펌이자 미국내 한국계 최대 회계법인인 Choi, Kim & Park, LLP가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마킬라도라 고객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며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시에는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4 멕시코 조세개혁안 국회 제출

2012년 제도혁명당(PRI)이 12년만에 정권 재탈환에 성공하면서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9월8일 멕시코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1월1일 시행예정 조세 개혁안은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마킬라도라 기업들에 작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있어 제한적인 해설과 함께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조세개혁안의 배경

빠냐 대통령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0.4% 그리고 2014년 1.5%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사회보장, 교육과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 국가중 최하위권 중의 하나인 GDP 대비 14%인 과세율을 Latin America 국가의 평균인 18%까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해서 지속적인 증세정책이 있을 것임을 예고 하였습니다.

조세 개혁안의 전반적인 방향

-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마킬라도라 조세혜택 및 감면 대상 축소
- 단일세율 법인세 (IETU) 및 현금입금세 폐지
- 법인세 감면 혜택 및 면제범위 축소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법인세율 인상: 30% 고정 (현행법 2014년 29%, 2015년 28%)
- 개인 소득세율 인상: 32% (년 소득 500,000 페소 이상인 경우 현행 30%)
- 부가가치세 인상: 국경지역 16% (현행 11%) – 국경지역의 평균소득이 국가평균보다 27%가 높다는 이유이지만 대부분의 마킬라도라가 국경지역에 몰려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임시수입의 경우 0% 세율 적용 폐지
- 배당금에 대하여 10% 원천징수 신설(현행 0% 이며 이 규정은 조세협약에 의해서도 감면이 않된다고 명시)

마킬라도라 조세 혜택 대상 대폭 축소

- 현행 총 매출액의 10% 이상만 수출하면 마킬라도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90%로 상향 조정.

단일세율 법인세 및 현금입금세 폐지

2008년 전격 도입되어 많은 논란과 마킬라도라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었던 17.5% 단일세율 법인세(IETU 또는 최저한세)와 은행에 현금 15,000페소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 3%의 특별세금을 과세하는 현금입금세 폐지

조세 감면 혜택 및 면제범위 축소

부가가치세(IVA or VAT)

- 임시수입의 경우에도 16% IVA 부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0%세율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 외국인에 대한 숙박/컨벤션등의 0% 혜택 취소
- 학자금, 주택매매와 임대외의 경우 0% 혜택 취소

비용공제(Deductions) 대상 제한 및 축소

- 특수관계자간 지불금에 대한 해당국가의 유효세율이 멕시코 세율(30%)의 75% 미만일 경우 멕시코 비용공제 불인정
- 고정자산 투자 등에 대한 특별 및 가속상각 규정 폐지: 대체 에너지산업도 포함하며 정액상각만 인정
- 은퇴연금 구좌 불입금의 비용공제 불가: 은퇴연금 실제 지급액만 인정
- 자동차구입 및 임대료 비용공제 대폭 제한: 자동차 한도 130,000 페소(약 1만불)/ 임대료 1일 200 페소 (약 15불)
- 비과세 종업원 복지후생비(사회보장세 부담금/상여금/오버타임 등)에 대하여는 41%까지만 비용인정.

CKP 해설

배경 및 향후 전망

최근 보스턴 컨설팅 등 전문기관들이 멕시코 제조비용에 대한 경쟁력은 중국을 추월했고 2015년까지는 중국보다 30%이상 경쟁력이 있게될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 하였다. 또한 12년만에 정권을 재탈환한 PRI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의 확충 그리고 사회전반의 인프라구축으로 권력의 장기화를 추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조달을 위하여 증세에 나설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세개혁안이 국회에 전달되자 즉각 야당인 PAN이 야외집회를 여는 등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집권당인 PRI가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다른당의 좌파가 가세해야 하는 등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마킬라도라 협의회등 이해관계 단체들이 로비스트를 통하여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 어느정도 타협된 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마킬라도라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경제에 마킬라도라를 통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PAN 집권 이후 과도한 조세감면이 주어져 왔다는 판단으로 마킬라도라 조세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존 마킬라도라의 범주에는 90% 멕시코 내수판매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멕시코 기업에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내수비중을 10% 이내로 줄이는 획기적인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11년에 신설된 마킬라도라 사용 기계장비 30% 이상 외국소유의무 규정에 이은 대폭적인 개정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 임시수입에 대한 16% 부가가치세 부과 이외에도 여러가지 현 마킬라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전가격결정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Safe Harbor를 택하던지 아니면 2003년 논란 끝에 중단된 의무적 사전가격협의(APA)를 부활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지급금에 대한 해당국의 유효세율이 22.5% 이하일 경우에는 비용산입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행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마킬라도라는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전제하에 다음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임시수입에 대한 16% 부가가치세 적용은 마킬라도라 기업의 즉각적인 현금흐름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멕시코 내수판매가 10% 이상인 기업은 내수만을 위한 비(非) 마킬라도라기업 별도 운영 검토.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로얄티, 보증수수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마킬라도라는 운용 및 자금흐름 구조 변경 검토.
- 기타 조세감면 또는 비용공제 제한 등에 따른 조세추가 부담액 검토.

기타

- 본 개혁안은 그 동안 멕시코 세무당국이 무차별적으로 집행하던 (은행구좌 등) 자산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2014년 3.9% 경제성장, 3% 인플레이션 예상
- 13 백만 페소(약 1 백만불)이하 매출 마킬라도라의 경우 이전가격관련 서류비치 의무면제 (Dec. 2012)
- 서비스 마킬라도라를 일반산업 마킬라도라와 차별적으로 개정된 각종 조세규정은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판결(Sep. 2013)

Offices in:

San Diego, CA (858) 560-5200 or yannikim@ckpcpas.com

Fort Lee, NJ (201) 585-7200

Irvine, CA (949) 757-0900

Los Angeles, CA (213) 480-9100

San Mateo, CA (650) 937-1040

Montgomery, AL (334) 356-5550

LaGrange, GA (706) 416-2655

CKP는 자체적 또는 RSM McGladrey와 연합하여 이전가격분석을 비롯한 국제조세분야에 Big 4 firm 수준의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이후 San Diego office를 중심으로 마킬라도라 서비스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국세청의 멕시코관련 자문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최소한 연간 1회 (혹은 수회) 마킬라도라 고객들을 위한 멕시코 세법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해설은 www.ckpcpas.com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